

01

이론과 현장을 모두 석권하다**-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 2관왕 달성의 기록 -**

프롤로그: 최고의 행정을 증명하는 방법

2025년 한 해, 강남구 재산세과 법인조사팀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했지만, 과연 우리의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대한민국 지방세정을 선도할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의 수준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국 지자체가 모여 실력을 겨루는 무대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세법 연구’라는 이론적 깊이를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실무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11월, 강남구의 세무 공무원들은 충남 보령과 강원 강릉으로 각각 향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제1막: 논리로 세상을 설득하다

첫 번째 승부처는 11월 1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25년 지방세 발전포럼’이었습니다. 이곳은 전국의 세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세 제도의 혁점을 찾고 개선안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이른바 ‘지방세 학술 올림픽’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강남구 대표단은 수개월간 준비한 연구 과제를 들고 연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현행 지방세법이 놓치고 있는 과세 사각지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발표자 임현희 법인조사팀장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조세 정의가 바로 섭니다.”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된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AI의 흐름을 맞춰가기 위해 AI의 첨단에 위치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재산세 가산율 적용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을 주장했습니다.